캄보디아, 출가자 집회금지법 제정 논란

불교 · 시민사회 반발
"출가자도 국민" 목소리

12월 8일 유력일간지 보도
법 제정 위한 워크숍 개최
SNS 등에서 반대운동 전개

박영빈 객원기자



정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스님들. 개정되는 종교법에서는 금지된다. 사진출처=프놈펜 포스트

캄보디아 정부가 출가자들의 집회를 제한, 참여 시 최고 투옥까지 가능한 법안을 제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8일 캄보디아 유력일간지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을 보도했다.

셍 소모니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종교에 관한 개정된 법률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무팀이 현재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법안을 완성하기 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론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안 초안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13장 54조항으로 이루어진 집회금지법안 중 제35조에는 "스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포함해 행동에 참여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기타 적용 가능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님이 관련 법을 어길 시 투옥도 즉시 가능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모니 외교부 대변인은 "유출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다. 캄보디아 불교지도자들과 워크숍을 열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했다. 소모니 대변인은 승려 구속에 대해 "불교가 사회 존경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법으로 불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스님들이 시위와 파업에 참여하면,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 등 불교 계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모니 대변인은 "스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적절하고 공정한 방안을 내놓고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방안이 SNS를 통해 퍼지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헌법이 스님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자유를 법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오우찬랏 캄보디아 개혁당 대표는 "개정안이 스님을 포함한 모든 시민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오우찬랏 대표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스님이나 성직자는 일반인들보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부분이 정치, 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스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은 그런 연유"라고 주장했다.

파 찬로응 캄보디아 민주연구소장도 "1993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권을 존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라며 "캄보디아 국민에 스님도 포함된다. 모든 국민은 양도할 수 없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있기에 현재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법무부 및 상원 자문위 등 기관에서 법률 검토 중이다. 입법과정이 가속화 되고 있어 시민사회계에서는 2022년 6월 캄보디아 총선 전 발효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美, 브루클린 박물관 불교 전시관 마련



18세기에 중국에서 제작된 금동 법랑채 감실. 중국, 티베트, 서양 디자인적 요소가 모두 혼합되어 있다. 사진출처=브루클린 박물관

불교신앙과 교리도 함께 소개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이 불교예술만을 위한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화제다. 지난 12월 10일 브루클린 지역 일간지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은 브루클린 박물관의 불교예술 전시관 개장 소식을 전했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박물관에 개장한 상설전시관 중 아시아, 이슬람 예술관에 이어 불교 예술 전시관을 오는 1월 21일 개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장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아시아 미술 수석 큐레이터들이 모여 기획한 이 전시관은 아시아 각 지역의 14개국에서 온 기원 후 2세기부터 2000년까지의 불교 예술품 7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관에는 불교신앙과 교리, 교단사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박물관 측이 미리 공개한 소장품 가운데는 일반적인 불상이나 불화가 같은 예술품 외에도 사찰에서 사용하는 법구(法具)나 장엄물을 비롯해, 불교적 모티프가 들어간 공예품들도 포함 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 오딧사주에서 발굴된 8세기경의 타라 보살상, 중국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함께 보시하여 봉안한 은제 사리탑 등의 걸작이 전시 될 예정이며, 14세기에 제작된 일본의 양계만다라(兩界曼荼羅) 2점은 25년만에 일반에 공개된다. 또한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19개의 불교유물도 특별전시에 포함되어 있다.

불교예술 전시관은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이슬람 유물들을 전시한 2층에 마련됐다. 전시 동선상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거나, 불교와 영향을 주고받은 여러 문명권의 유물들은 한번에 볼 수 있게 하는 박물관의 계획이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현재 2022년 후반에 히말라야, 이슬람, 남아시아 상설 전시관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 성평등 나선 태국 '비구니' 스님들

여성출가 금지 반발, 비구니승단 복원 나서

1928년 이후 여성출가 금지
2002년 비구니 수계 시작해
800여 비구니 스님들 앞장



태국 최초 비구니로, 비구니 승단 복원에 앞장서는 담마난다 스님. 사진출처=이코노믹 타임즈

여성출가가 인정되지 않는 상좌부 불교교단에서, 비구니 승단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어 화제다. 12월 9일, '이코노믹 타임즈'는 태국 비구니 승단 복원에 앞장서는 담마난다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1998년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은 담마난다 스님은 "처음 계를 받고 태국에 돌아왔을 때 사회반응은 '매우 괴이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재 태국은 1928년 불교 최고 의결기구인 '승가최고위원회'서 여성출가를 금지한 이후 80년 넘게 여성출가가 제한되고 있다. 스님은 "비구니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나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몇몇 장로스님들은 '마침내 사부대중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했다"며 상반된 견해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현재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중부 나콘파톰주에 소재한 송담마깔랴니 사원에 주석하며 다른 비구니 스님들과 수행정진하고 있다. 이 사원은 1960년 중국계 비구니 스님인 다타오(大道) 스님이 창건한 이래, 태국 비구니 운동의 산실이 되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선 여성출가와 수계를 허락하셨지만, 현재 태국에선 그 맥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 비구니 스님들은 대부분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았으며, 2002년에서야 송담마깔랴니 사원에 계단이 세워지고 비구니 수계가 이뤄졌다. 현재 태국에는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해 800명 이상의 여성 출가자들이 승단을 이루고 있다.

진보적인 사회계층들은 비구니 승단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송담마깔랴니 사원이 있는 나콘파톰주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더 이상 낮선 존재가 아니다.

스님은 "현재 태국엔 비구니 285명이 있으며, 이는 부처님께서 세우셨던 승단의 원래 모습"이라며 "사부대중으로 이뤄진 불교를 회복하고 있다. 만약 태국에서도 여성출가를 공식 인정한다면, 태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빈 기자

中, 最古 청동불상 발견

후한 시기 추정, 간다라 양식 강해



발굴된 2구의 청동불상중 입상. 간다라양식의 통견대의를 입고 있으나, 불두는 중국식의 모습을 보인다. 사진출처=신화통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불상이 발견되어 화제다. 지난 12월 11일 중국관영 온라인 매체인 '중국망'은 산시성 셴양시에서 발견된 청동불상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산시성 고고학 연구원은 "후한(後漢, 25~220) 시대의 무덤에서 청동불상 두 점이 발굴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불상은 남아시아 간다라 문화의 전형적인 양식이 특징적으로 보이며, 발굴 당시에는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품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의 리밍 고고학자는 "이번에 발굴 된 불상은 연화좌에 서있는 석가모니 불상으로 약 10cm이다. 다른 하나는 납작하고 높이가 15cm 정도이며 좌선하고 있는 5명의 부처를 묘사하고 있다. 두 점의 유물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현지화 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1세기경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발견으로 불교 전래의 역사를 2세기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고학 연구원은 무덤에서는 불상 외에도 청동 거울, 항아리, 동물 조각품 등 부장품들이 출토되었으며, 후한 말기의 대표적인 양식들이라고 전했다. 함께 발견된 항아리에는 영수 4년(永壽, 158년)이라는 연대가 기재되어 있어 묘지의 연대가 특정됐다. 묘지가 발굴된 지구는 역대 귀족과 고위 관리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으로, 불상이 발견된 가족 묘 역시 고위 관리 또는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류칭주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일던 시기에 불교가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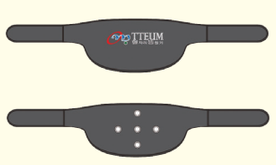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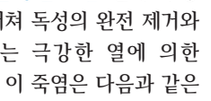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갑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